

연애에 관한 재미있는 연구 두 가지

■ “썸남이랑 ‘19금 영화’ 같이 보면 연인 될 확률 높다”
아직 모든 것이 조심스러운 ‘썸’ 타는 시기 결정적인 ‘한 방’으로 알콩달콩 연애를 시작하고 싶다면 주목하자. 최근 온라인 미디어 러브 왓 매터스는 연인 간 진한 스킨십이 등장하는 일명 ‘19금 영화’를 함께 본 남·녀가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지난 2007년 이스라엘 바르일란대학교의 구릿 바움 교수가 학술지 ‘성 연구 논문(The Journal of Sex Research)’에 실은 내용을 토대로 했다. 당시 구릿 바움 교수는 ‘성적 자극에 대한 노출이 남·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주제로 설문조사 및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성적으로 자극적인 영화를 같이 감상한 남·여는 서로에 대한 호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개 영화를 본 뒤 자기도 모르게 훨씬 더 내밀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적인 자극을 받은 뒤에는 곁에 있는 이성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욕망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꼭 영화가 아니더라도 성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두 사람 사이 호감을 높여줄 수 있다. 연인 간 스킨십에 대한 내용을 대화 주제로 고르거나, 운동하는 방법 등이 그런 것이다.

오늘 당장 ‘1일’이 되고 싶은 썸남 혹은 썸녀가 있다



면 은근히 야한(?) 영화를 함께 보는 건 어떨까? 분명히 두 사람 사이 감정을 끌어올려 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질투 많은’ 남자가 한 여자와 오래 만난다



많은 남자들이 질투하면 서도 여자친구에게 솔직히 표현하지 못하고 ‘쿨한 척’을 하곤 한다. ‘혹시나 웅크려 보이지는 않을까?’, ‘집착하는 것처럼 보여 여자친구가 떠나버리진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쿨한 척하는 남자보다 솔직하게 질투를 표현하는 남자들이 연인과 더 오래간다고 한다. 진화심리학자이자 텍사스 오스틴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데이비드 버스에 따르면 질투는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짝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본능적인 전술이다. 연인을 빼앗길 것 같은 징조가 느껴지면 방어하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질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질투가 나는 상황에서 적당히 질투를 표현하면 연인과 오래 함께 할 수 있지만, 이를 표현하지 않고 꼭 참으면 연인을 빼앗길 수도 있다.

또한 웨스턴일리노이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유진 메세스의 연구에 따르면 질투 점수가 낮은 커플은 7년 후 대부분 헤어졌지만, 한 명 혹은 두 명 모두 질투가 심한 커플은 대부분 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단, 심리학자들은 무작정 질투를 하기보다는 질투가 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앞으로 질투가 난다면 숨기지 말고 여자친구에게 솔직히 표현하도록 하자. 질투가 당신과 여자친구의 사랑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백세건강지킴이
세리토스,
다우니, 롱비치,
실비치 지역등
노약사에게 전화주세요.



- 저렴한 가격
- 시니어 약 전문상담
- 무료 배달
- 25년 병원 임상경험

약사 노혜경
Pharm.D.
Board Certified
Pharmacotherapy Specialist

학/장/이/전

Howard
Drugs

Del Amo Blvd. 와 Pioneer Blvd.
MART 옆

20141 PIONEER BLVD.
LAKEWOOD, CA 92715
(562) 866-6011

노약국

Your Locally Owned
HealthMart
PHARMACY

This pharmacy is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under a license from Health Mart Systems, Inc.

구이마을

푸짐하고 맛있는 집으로 소문난

참숯불 구이 • BBQ 콤보



구이마을 별미
꼼장어

강력추천!!!
곱창, 구이, 볶음

구이마을 추천
황태구이

대창구이, 곱창구이
막창구이, 찞不理
아구찜

런치스페셜

714.484.9292
8535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CHAPMAN CARE CENTER
Skilled Nursing and Sub-Acute Facility

채프먼 케어센터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요양병원



가든그로브와 에너하임의 경계에 위치한 채프먼케어센터는 99개의 침대를 보유한 숙련되고 전문화된 준급성의 시설로 환자에게 최고의 간호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HMO, PPO 보험 받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른 캐시 플랜도 제공합니다.

전문 간호 서비스

- 24시간 전문 간호사 케어
- 단기 재활 치료 및 장기 치료
- 링거 투여 (정맥 치료)
- 튜브 음식 투여 관리
- 전문 상처 관리
- 비경구영양, 정맥영양
- 당뇨병 관리
- 투석전우관리
- 근육경축/부목
- 통증 치료 및 관리
- 회복간호지원 프로그램 제공

채프먼의 특별 혜택

- 개인실 및 2인 1실 제공
- 전문 영양사의 전문 메뉴와 식습관 관리
- 일상 생활 프로그램 지원
- 모든 방에 TV와 인터넷 제공
- 미용과 이발 서비스 지원
- 사회복지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
- 종교 서비스
- 퇴원 절차 관리
- 한국 문화 프로그램 제공 (다양한 게임과 특별한 메뉴 제공)

추가 특별 서비스

- 약 서비스 (처방약 포함)
- 각종 검사와 방사선 검사
- 전문 영양사와 영양 상담
- 치과, 청각, 검안과, 발 전문의 서비스
- 심리학과, 정신과 서비스 제공
- 호스피스 간호 서비스 제공
- 위탁 간호 서비스 제공

준급성 치료 서비스

- 모든 숙련된 간호 및 재활 서비스 포함
- 호흡 치료
- 기관절 절개 치료
- 인공 호흡기 관리 및 치료

재활 치료 서비스

- 물리 치료
- 작업 치료
- 언어와 연하 치료



CHAPMAN CARE CENTER
Skilled Nursing and Sub-Acute Facility

12232 Chapman Avenue Garden Grove, CA 92840

채프먼케어센터

Tel: 714.971.5517 Fax: 714.971.5701

한국인 담당 / Faith Kim(페이스킴)

714.469.5720

faithk@chapmancare.net

입원/퇴원 수속에 관한 문의는 연중 무휴 팩스 가능